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0. 2.(수) 06:00 < 10.2.(수) 석간 > 배포 2024. 10. 1.(화)

K-수출 역대 최대 실적을 향해 순항

- 역대 최대 수출 향한 막판 스퍼트 … 광군제 등 연말 한시적 수출보험한도 확대
- 통상교섭본부장, 인천신항 수출현장 방문 … 해상물류 점검
- 미 동부 항만노조 파업, 중동지역 분쟁 확대 가능성 등 리스크 관리 철저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 수출입 물류의 전초기지이자 수도권 수출입 물동의 관문 역할을 하는 인천신항(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을 방문하여 수출 화물 선적 등 해상물류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로자를 격려하였다.

인천항은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 2위 항만으로서 자동화 터미널 시스템 도입(~'27년)과 배후단지에 조성 중인 콜드체인, 전자상거래 특화 구역을 토대로 중국, 아세안 등 역내 수출입의 핵심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정인교 본부장은 인천신항을 참관하며 "우리 수출은 1~9월 누계 기준 자동차 1위(529억 불) 및 반도체 2위(1,024억 불), 총수출 5,088억 불(+9.6%)을 기록하였으며, 12개월 연속 수출플러스, 16개월 연속 무역흑자 달성 등 확고한 우상향 기조를 바탕으로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향해 순조로운 페이스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남은 기간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력 품목의 호조세가 전망되는 만큼 역대 최대 수출을 향한 막판 스퍼트에 범정부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직접적인 수출 확대 성과를 낼 수 있는 하반기 수출 붐업 코리아 등 수출 상담·전시회를 연말까지 집중 개최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370조 원의 무역금융을 적극 공급하며 특히, 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소비 성수기에 대응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수출보험한도를 30%까지 확대한다. 또한, 최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중동 분쟁 등의 대외 리스크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특히, "어제부터 시작된 미 동부항만 노조 파업으로 인한 수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 비상대책반을 중심으로 대체 물류선 확보, 대금결제 지연에 대비한 피해기업 유동성 지원 등의 비상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본부장은 인천항만공사에 "인천항이 향후 비약적인 물동량 확대가 전망되고 수도권 과밀 지역에 위치한 만큼 안정적이고 보다 신속한 컨테이너 반출입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과 인프라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무역정책관 무역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상용(044-203-4020)
		담당자	사무관	서두원(044-203-4024)
			사무관	홍경태(044-203-402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